a+u
신건축
Architectural Record
Dom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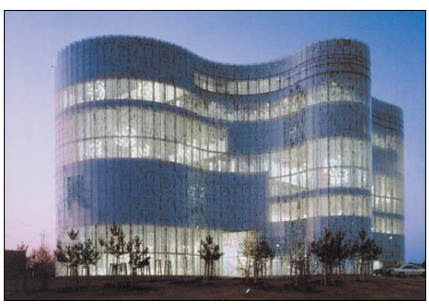
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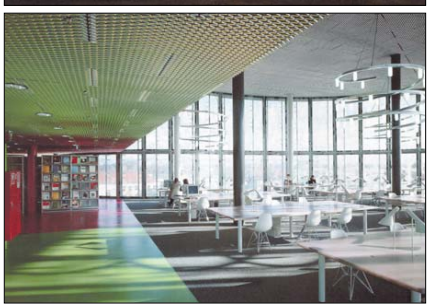
2005년 8월호

이번 호는 유명 건축사의 최근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소개된 건축사는 헤르조그 드 므롱, 피터 아이젠만, 프랭크 게리, 자하하디드, OMA(렘 콜하스)이다. 흥미로운 것은 헤르조그 엔 드 므롱을 제외하면 모두 1970년대 해체주의를 이끌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30년 전에도 그랬지만 소개된 5작품은 각 건축사들의 개성이 강하게 묻어나고 있어 이들의 작품을 비교해 보는 재미 또한 제공한다.

IKMZ BTU Cottbus(브란덴부르크 공과대학 인포메이션 · 커뮤니케이션 · 미디어 센터, 독일 코트부스) – 설계 : 헤르조그 엔 드 므롱(Herzog & de Meuron)

이 건물이 세워진 브란덴부르크 공과대학(BTU)은 동서 독일의 통일과 함께 1991년에 새로이 창설된 대학이다. 기존 토목공학대학과 그 외의 연구시설이 있었던 부지에 캠퍼스가 조성되면서 각 건물은 통일된 디자인으로 계획되었다. 헤르조그 엔 드 므롱은 1990년에 이루어진 현상설계에서 제안한 것은 2개의 사각형 매스의 건물을 설치하여 도서관과 주요 강의동을 수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계획의 방향은 크게 선회하게 된다. 메인 오디토리움은 캠퍼스의 다른 곳에 세워지게 된 것이다. 강의동의 역할이 없어진 이 상황에서 그들은 도서관이란 다른 건물들과는 차별된 것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캠퍼스의 여러 건물들 중에서도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서 랜드마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대학의 새로운 정신을 표출하고 주변과 교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건물의 디자인은 통일된 여타의 캠퍼스내 건물과 전혀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다.





IKMZ BTU Cottbus

얼핏 보면 아메바와 같은 평면형태는 무작위적인 형태로 비쳐진다. 그러나 이는 주변 부지의 상황을 고려해 여러 형태를 스터디하며 신중히 골라진 것이라고 설계자는 말한다. 오목한 면과 볼록한 면이 교차하는 이 건물은 캠퍼스의 중앙에서 바라보면 방문자를 감싸 안는 듯한 포근함을 보이고, 캠퍼스의 입구에서 바라보면 우뚝 선 타워와 같은 모습으로 그 존재감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즉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표정을 갖게 만들었으며, 이는 건물이 세워지는 부지의 주변상황과의 조화를 고려한 형태라는 것이다. 보는 각도에 따라 얼마나 건물의 표정이 바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각형의 박스형태로 매우 절제된 디자인을 보여주는 여타의 캠퍼스 건물들과 분명한 차별을 이루고 있는 것만은 명백하며, 캠퍼스의 보석이자 랜드마크라는 개념은 달성된 듯 하다.

건물 내부는 층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오프닝을 슬래브에 계획하였다. 이 오프닝으로 인하여 실내에서는 상당히 다채로운 공간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건물 내부에는 하나의 거대한 나선형 계단과 두 개의 원형 코어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세 개의 거대한 원기둥은 건물 내부에서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한다. 건물 외곽선이 부정형인 만큼 방문자가 방향성을 상실하기 쉬운점을 고려한 것이다. 방향성 그리고 영역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

치는 또 있다. 레몬과 그린, 핑크, 레드, 블루 그리고 그레이라는 6가지 색상을 통해 바닥 패턴을 표시한 것이다. 열람실은 차분한 회색으로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다채로운 색상의 바닥패턴을 적용하여 건물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방향성과 영역성을 동시에 획득하고 있다.

유리 커튼월로 된 건물의 외벽에는 알파벳을 비롯한 세계 각국 언어의 문자들이 서로 몇 층에 걸쳐 겹쳐져 있는 형상을 프린트해 놓았다. 물론 무어라 적혀 있는지 판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 문자기호의 세계를 그 출발로 한 문양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다. 프린트된 문양은 반사되는 빛을 교란시켜 유리표면이 갖는 딱딱한 질감을 감쇄시키고 건물 전체에 균질성을 부여하고 있다.

제이 프리츠커 파빌리언(Jay Pritzker Pavilion, 미국 시카고)–설계 : 프랭크 게리 (Frank O. Gehry)

제이 프리츠커 파빌리언은 시카고의 그랜트 파크내에 위치한 야외 공연장으로 그랜드 파크 교향악단의 연주회를 개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이와 더불어 각종 재즈나 블루스, 월드 뮤직 콘서트가 열리게 될 시설이다. 야외 공연장의 무대가 되는 파빌리언은 게리 특유의 조각적인 디자인 요소가 사용되었다. 파빌리언은 공원 주변의 도로에서도 잘 보임으로써 새로운 밀레니엄 파크의 중심시설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파빌리언은 120명 규모의 오케스트라를 수용할 수 있고, 최대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코러스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다. 무대의 전면은 거대한 유리문으로 개폐가 가능하여 동절기에는 단체나 개인의 연회장으로 사용된다. 객석부분은 2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파빌리언 가까이에는 4,000석의 좌석이 고정된 주객석부가 있다. 그 뒤로는 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잔디가 깔린 광장이 마련되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두 개의 객석영역은 19.8m의 간격으로 배치된 격자형의 스틸 파이프로 덮여 있다. 이 스틸 파이프의 격자는 객석공간의 영역성을 시각적으로 확보해 줄 뿐만 아니라 스피커가 설치되어 무대에서 먼 곳의 객석에서도 충분한 음향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있다. 무대에서 은빛의 화염이 폭발한 듯한 장식 외에 또 하나의 볼거리는 컬럼버스 드라이브(4차선 도로)를 건너 보행자를 공연장으로 인도하는 BP브릿지가 그리는 곡선의 미려한 디자인이다.

Jay Pritzker Pavilion

BMW 라이프치히 공장의 센트럴 빌딩(독일 라이프치히)–설계 : 자하 하디드(Zaha Hadid)

최근 '로마현대미술센터'의 디자인에서도 보이듯이 운동감 넘치는 형태의 디자인을 해 왔다. 아마도 'BMW 센트럴빌딩'만큼 이 같은 그녀의 최근 경향과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건물은 없을 것이다. 'BMW 센트럴빌딩'은 3동으로 이루어진 공장 플랜트 사이에 위치하여 공장의 메인 엔트런스 기능과 오피스, 중앙제어실, 카페, 진료실, 방문고객센터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건물이다. BMW는 지난 2004년 10월 본사를 이 센트럴빌딩으로 이전하였다. 센트럴빌딩은 3개의 공장동을 연결하는 기능 또한 담당한다. 물리적으로 3개동을 연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개 공장동간의 빈번한 인적·물적 이동이 이 센트럴 빌딩을 통해 이루어진다. 생상되는 자동차는 각각 도색, 용접, 조립의 작업이 행해지는 3개의 공장동을 누비며 완성되는데, 공장동을 연결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바로 센트럴빌딩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센트럴 빌딩은 화이트컬러와 블루컬러의 공간을 나누고 있지 않다. 이는 BMW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부분이다. 사람과 자동차의 생산라인이 서로 한 공간에 중첩되고, 또한 오피스와 공장이 공존하는 이 곳은 BMW의 모든 것을 한 눈에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 되고 있다. 흐르는 듯한 역동성을 강조한 자하 하디드의 조형언어는 이와 같은 실질적인 물류의 흐름과 어우러져 통일되고 명쾌한 공간의 성격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그녀의 디자인에서 나오는 기계적인 이미지와 미래적 이미지는 '제1기계시대'의 대표적 산물인 자동차 메이커 본사의 이미지와 어우러지고 있다. 20세기 초 아방가르드의 공장건축에 나타난 기계미학을 21세기 초의 버전으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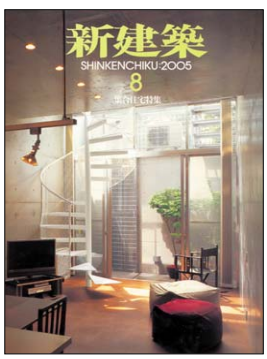
BMW 라이프치히 공장의 센트럴 빌딩

까사 다 뮤지카

이 외에도 피터 아이젠만의 '유럽 유태인 희생자 추모 기념관'과 OMA의 '까사 다 뮤지카(Casa da Musica)'가 소개되었다. 아이젠만은 희생된 유태인 개개인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2,700기의 묘비모양의 콘크리트 기둥을 만들었으며, OMA는 조각적 형태의 공연장을 선보였다.

신건축

2005년 8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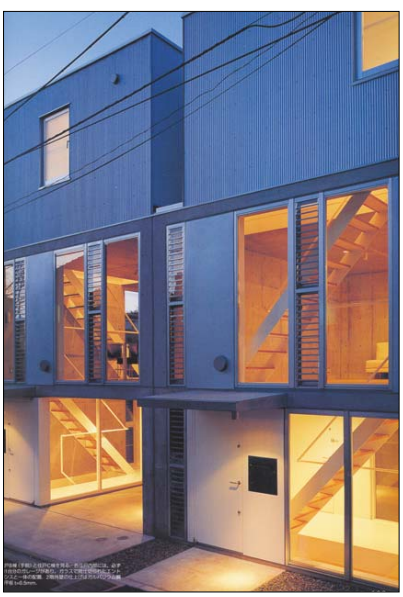
이번 신건축지는 '집합주택특집'으로 꾸며졌다. 신건축지가 종종 특집기사를 꾸미지만 본격적인 특집기사는 이번처럼 표지의 중앙에 특집의 제목을 새겨 넣을 때 만이다. 본격적인 특집답게 최근 일본에서 완공된 중소규모의 집합주택이 상당수 소개되었다. '집합주택'하면 아파트를 더올리는 국내의 사정과는 달리 일본에서 최근 일고 있는 건축사가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한 중소규모의 집합주택 붐을 읽을 수 있는 특집이다.

■ **집합주택 특집**

이번 특집에는 총 19개의 중·소규모 집합주택이 소개되었으며, 3편의 에세이가 실렸다. 하나의 동으로 구성된 소규모 집합주택에서 중정을 갖는 중규모에 이르기까지 작품별로 다양한 특징들을 지닌 것들로서 최근 다종·다양화 하고 있는 일본의 집합주택 경향을 잘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규모와 특징별로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

차바 마나부(千葉学)가 설계한 '토도로키의 가라지(Garage)하우스'는 총 3호가 연립된 소규모 집합주택이다. 정확히는 작은 토지를 몇 개의 필지로 나누어 주택을 지어 파는 일본의 대표적인 소위 집장사 형태의 주택이다. 작은 필지로 나누어 주택을 짓는 현상은 일본에서 전형적인 현상으로, 큰 필지에 하나의 집합주택을 짓는 것보다 필지를 잘게 나누어 작은 소규모의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것이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일본에서는 '타테우리 주택'이라 한다. 당연히 타테우리 주택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좁은 필지에 너무나도 작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이다. 토도로키의 가라지 하우스를 설계한 치바 마나부는 3개의 타테우리 주택을 지으면서 이와 같은 부정적 측면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부지 경계면에 바짝 붙여 건축할 수 있는 일본의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지만 3개의 주택을 마치 하나의 집합주택처럼 모아서 건축한 것이다. 이로서 비교적 여유로운 진입공간과 도시경관에 적절한 건물의 매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특징 이외에 3개 층으로 구성된 이 주택은 층별로 다른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만들어져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규정된 공간 사용이 아닌 입주자에 의해 공간의 성격과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융통성의 확보는 일본 집합주택에서 주요한 요건이 된 지 오래다.

'액시아 아자부(AXIA 麻布, 야마시타 마사히코(山下昌彦)와 UG도시건축 설계)'는 타워형의 집합주택이다. 중앙에 코어를 두고 좁고 세장한 주호를 코어주변에 두른 것으로, 도심형 원룸주택이 주를 이룬다. 주호의 한 면만 외기에 면하고, 좁고 긴 평면이 가지는 협소한 공간감을 해소하기 위해 메조넷 형식의 주호가 첨가되었다. 메조넷 형식 주호의 단면은 르 꼬르뷔제의 '유니떼다비따시옹'의 주호를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하프 스팬의 메조넷 타입과 1스팬의 타입이 존재하고, 또한 플랫형식의 두 가지 아뜰리에 타입이 마련되어 있다. 주호의 규모도 46㎡에 서 172㎡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집합주택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공용의 스카이라운지와 게스



토도로키의 가라지하우스

액시아 아자부

액시아 아자부의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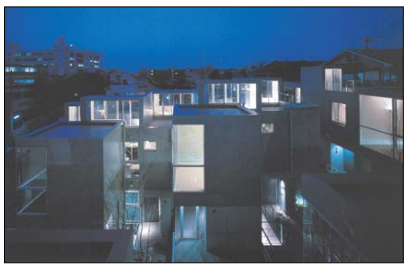
트룸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1층의 엔터런스 홀과 더불어 이와 같은 고급화된 공용공간은 협소한 개인 주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다.

니시모리(西森)건축사무소가 설계한 'n-GT1'은 작은 중정을 지닌 저층 집합주택이다. 총 10호로 구성된 이 집합주택은 실거주자들이 모여 집합주택을 건설한 것으로 이와 같은 형태를 일본에서는 '코포레이트브(cooperative) 주택'이라 부르고 있다. 실거주자가 미리 정해진 상황에서 설계되기 때문에 각 입주자의 기호에 맞추어 각 주호의 설계가 이루어지며, 설계자는 각 입주자의 개성을 충족시키면서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3개 층으로 이루어진 이 집합주택은 공용의 홀을 갖지 않는다. 10개의 주호는 각각 독립된 출입구로 중정에서 직접 출입하며, 5개의 주호가 1층에 출입구를 두고 있다. 나머지 5개의 주호는 2층으로 오르는 외부 계단을 통해 진입한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주호는 메조넷 형식으로 구성된다. 각 주호의 독립성은 극대화되어 있지만 출입 동선이 모이고 흩어지는 중정은 이 코퍼레이티브 주택의 훌륭한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

'코트데코 오야마다이(Courtdecor 尾山台, 타이카츠마(田井勝馬) 건축연구소 설계)'는 n-GT1과 유사하지만 규모가 크다. 중앙 진입로의 역할을 하는 중정을 통해 각 주호로 진입하며, 마찬가지로 공용의 홀은 없다. A, B 두 타입만 존재하는 주호는 지하1층에서 2층 그리고 루프 테라스에 걸쳐 이루어져 있다. 각 주호가 지하에서 루프테라스까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이와 같은 계획방식은 전체적으로 보면 계단의 면적이 늘지만 주호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각 주호에 다양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장점이 있다.

(글/강상훈/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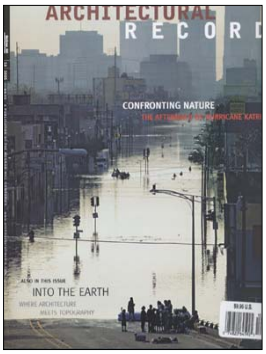
n-GT1



코트데코 오야마다이

Architectural Record

2005년 10월호



이번 호는 랜드스케이프로부터 건축적 개념이나 형태를 차용하는 흐름들을 주제로 다루었다. 건물유형연구에서는 현 미국 공항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각국의 최신 공항건축이 소개되었으며, 개발지향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릇으로서 캘리포니아의 주거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 Landform – 미래 건축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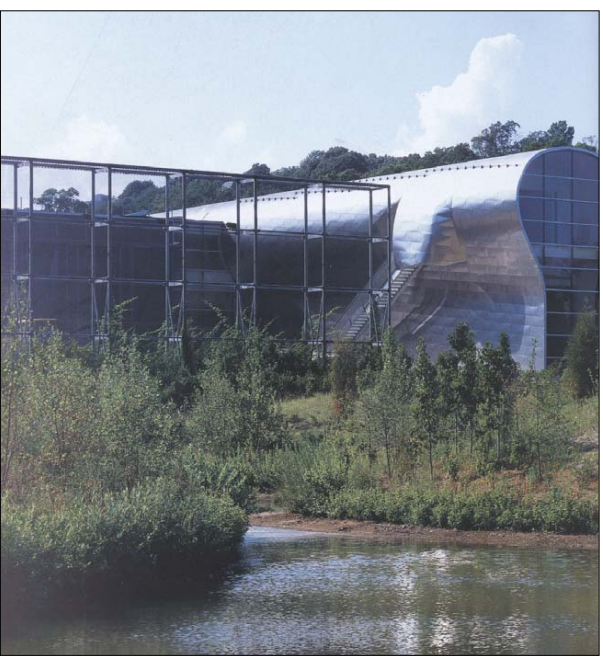
건축가들은 영감을 얻기 위해 말 그대로 땅을 파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랜드스케이프 건축가들과 협업하여 디자인하고 있으며, 건물 그 자체가 대지 형태를 띠고 있다. 다음은 건축개념을 땅으로부터 도출한 작품들의 사례이다.

Tada● And●의 Chichu 미술관

오사카 남서쪽에 위치한 나오시마 섬에는 독특한 문화 콤플렉스가 입지하고 있다. 섬의 중심부에는 에도시대에 번성했던 주거지를 예술작품의 설치장소로 재생시켰는가 하면, 다이쇼시대의 동 제련소가 교육 출판 회사인 Benesse에 의해 문화복합시설로 탈바꿈되었다. Tadao Ando와 기타 건축가들이 설계에 참여하여 Benesse House, 현대 미술관, 갤러리, 호텔 등으로 구성된 컴플렉스가 1992년 완공되었다. 이 지역에서 약 반 마일 떨어진 곳에는 Ando가 설계한 Chichu 미술관이 자리잡고 있다. 나오시마 Fukutake 미술재단은 이

Chichu 미술관

곳에 Claude Monet, James Turrel, Walter De Maria 단 세 작가만을 위한 영구 설치장소를 마련하였다. 건축가는 세 작가의 갤러리를 미로와 같은 공간적 시퀀스로 연결하였다. 밝



정수장 공원

음과 어두움, 열림과 닫힘이 교차하면서, 통로가 되기도 하고 목적지가 되기도 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예술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오히려 Ando 건축의 강력한 인상을 기억하며 섬을 떠나게 된다. Ando는 기하학적 형태의 천창등만 남겨둔 채 관목과 나무들이 건물 상부를 덮게 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이 읽혀지게 하였다. 나오시마 현대 미술관 등에서는 건물의 절반을 대지 아래에 묻은 것은 그러한 이유에 근거한다. 기념비성 없이 기념비적 공간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전략에 의해 가능하였다.

Steven Holl의 정수장 공원

마치 문화시설처럼 보이는 이 건물은 사실 매일 1500만 갤런의 물을 정화시키는 장치를 담고 있는 건물이다. 중상류층의 거주지와 인접한 곳에 정수장을 설치해야 했기에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콘크리트 벙커와 같은 구조물이 아닌, 이상적 환경을 위한 중심체로서 디자인 된 것이다. 발주처인 지역수자원공사는 지역 주민들도 건축가 선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고, 몇 개의 회사를 인터뷰한 결과 Steven Holl이 건축가로 결정되었다. 고도로 특화된 프로그램에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 건축적 어휘를 발전시키는 것은 Holl과 담당 건축가들을 고무시키는 작업이었다. 그들은 물을 정화시키는 복잡한 과정(물 분자수준에서 시작하는 일련의 단계들)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지상에는 공공 및 운영 프로그램을 담는 2개층의 은빛 구조물이 들어섰으며, 지하에는 여러 레벨로 나누어진 수처리시설이 들어가게 되었다. 긴 원통형의 구조물 중간중간에 솟아오른 구멍들은 형태적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개구부나 외부계단이 삽입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정수장 주변의 14에이커에 달하는 대지에는 정수장과 통합되는 공원 프로그램이 요구되었다. Holl은 물을 정화하는 6단계의 과정의 은유하여 6개의 독특한 구성을 가진 외부공간을 협력 조경 건축가에게 제안하였다.

그 밖에 Reed Hilderbrand and Maryann Thompson의 보스톤 와이너리 공원, Palern + Tabares de Nova Arquitectos의 Cesar Manrique Foundation Studio,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의 Paul Klee Center 등이 소개되었다.

■ 건물 유형 연구 – 공항

9.11 테러 이후, 저렴한 공사비로 보다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적용하는 경향이 공항설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American Airlines의 JFK 공항은 공사비를 너무 절감한 나머지 고등학교 체육관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JFK공항에 한정된 것이 아닌데, 그 결과 미국 전역에 걸쳐 비기능적이고 비능률적인 교통집산지가 생성되고 있다. 이와 달리 우수한 구성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로 Richard Rogers Partnership과 Studio Lamela의 마드리드 Barajas 공항, SOM과 Moshe Safidie의 텔아비브 공항, HNTB와 HKS의 달라스 포트워쓰 터미널 D, NBBJ의 시애틀 남측 터미널 증축이 소개되어 있다.

■ 캘리포니아의 주택 작품 4제

캘리포니아의 인구는 지난 35년 동안 약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캘리포니아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환경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여유 있는 라이프스타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거환경 또한 개발지상주의의 획일화된 도시조직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가진다. 잘 조성된 마을조직 속에 각 주택이 적당한 필지규모로 삽입되어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경관을 이뤄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각 주택의 독특한 형식 역시 생생하게 살아있다. 소개된 주택 작품은 700 Palms Residence, Lee Tree House, Santa Barbara Residence, 310 Waverley Residence이다.

Domus

2005년 10월호

건축작품으로 캘리포니아 건축가 Michael Maltzan의 실험적인 작품들과 오스트레일리아 고속도로의 조형물이 소개되어 있다. 직물 디자인(textile design)의 최신 경향을 소개하고 있으며, 미국 뉴올리언즈 태풍참사에 대한 건축가 등의 에세이를 게재하고 있다.

■ **Michael Maltzan - Prisms**

최첨단 재료를 사용하여 복합적인 시각 효과를 노리는 캘리포니아 건축가 Maltzan의 작품들은 사적, 공적 공간의 자연스러운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Fresno Metropolitan Museum의 경우 Fresno의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건물 전체를 땅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내부 통풍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동시에 밑면을 제5의 입면으로 활용하고 있다. Maltzan의 작품들은 대부분 도시의 기존 조직을 새 건물의 일부로 도입하여 새로운 도시적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Fresno 박물관 역시 건물 밑의 공간을 역동적으로 구성하여 외부에서 내부로의 점진적인 전이를 도모하고 있다. 울룩불룩한 천정을 통해 들어오는 태양빛은 물에 반사된 태양빛과 같은 효과를 내며, 외부영역 곳곳에 마련된 수반은 박물관 내로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를 자연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Maltzan의 기타 작품으로 중국 Jinhua 건축공원 내 책바, LA의 Leona Residence 등이 소개되어 있다.

■ **오스트레일리아 고속도로 경관 설치물**

2003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멜버른 북측 외곽의 새 고속도로에 설치될 두 개의 경관 조각에 대한 설계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Taylor Cullity Lethlean이 이끄는 디자인팀의 당선안은 고속도로에 의해 끊긴 두 지역을 연결하는 보행자용 구조물와 차음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속도로 위를 지나는 원형 구조물은 직선 고속도로와의 형태적 대비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전달하며 철재마감으로 둘러쌓인 보행로에서는 입면의 틈을 통해 멜버른 시내를 바라볼 수 있다.

■ **직물 디자인**

신부 겸 예술가인 Don Battista Marello의 옛 직물 모음,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빛에 반응하는 신소재를 개발한 Nanni Strada와의 인터뷰, 현대 직물 디자이너인 Tord Boontje의 작품세계가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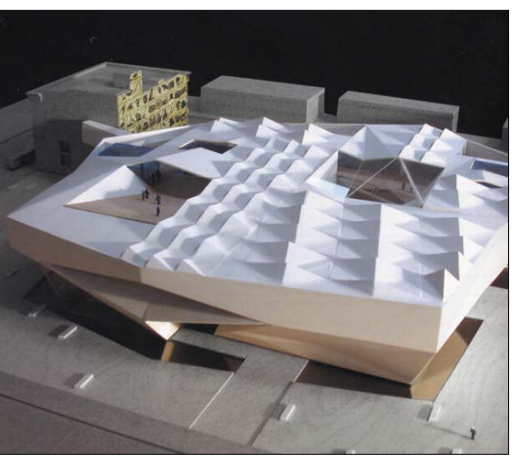
■ **신간서적 비평**

Mario Pisani의 근대건축가 Marcello Poacentini 작품집, Carlos Ferrater의 최근작을 담은 2G 작품집, Fiorella Bulegato, Sergio Polano의 이탈리아 디자이너 Michelle De Lucchi 작품집, Deborah Ascher Barnstone의 The Transparent State: Architecture and Politics in Postwar Germany, 캐나다 몬트리올 도시론을 다룬 The 60s: Montreal Thinks Big에 대한 비평을 게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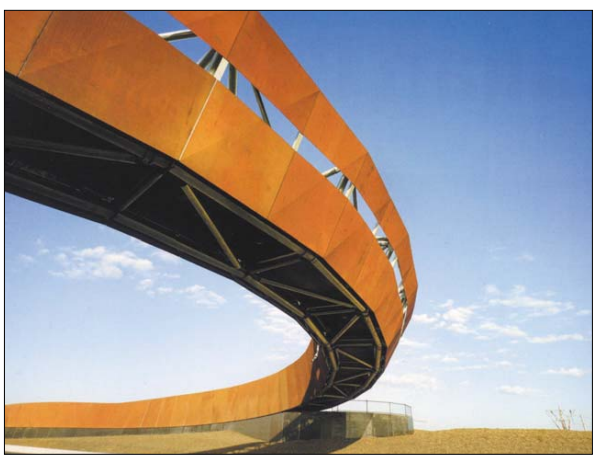
■ **기타**

2000년 6월에 있었던 Beatriz Colomina와 Peter Smithson의 인터뷰, 미국 뉴올리언즈 태풍참사에 대한 건축가 Denise Scott Brown, Fumihiko Maki, 작가 Marco Belpoliti, 철학가 Manuel DeLanda의 특별기고, Richard Neutra의 주택을 디지털적으로 변형시킨 Amir Zaki의 사진 작품, Bruce Conner와의 인터뷰, 서울 출신으로 파리에서 활동중인 예술가 Koo Jeong -A의 작품세계 등을 다루고 있다.

(글/최원준/공학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실장)



Fresno Metropolitan Museum



오스트레일리아 고속도로 경관 설치물